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쿠키 나눔: 지난주 밀알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를 위해 기도와 도네이션으로 성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Donation 금액: \$96.80)

2 예배: 각 공동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3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4 월례회: 3남, 2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 유아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교우소식

1 모친상: 한상순 집사 (최현철 집사): 5/25 새벽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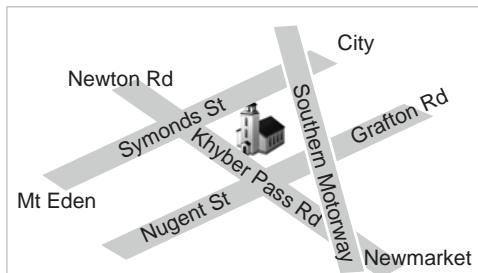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밀알장애인 봉사

오시는 길



2012년 5월 27일

14권 22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날 사람 그 예배자 (요4:24)

생명을 살리는 법 - 박재용 장로

섬나라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다. 멋진 요트 놀이를 하며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물고기를 위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나는 요즘 낚시하러 다니면서 잡은 Snapper 중에서 치수 28cm에 못 미치는 것은 놓아주면서 속으로 말한다. 뉴질랜드 법 때문에 너를 놓아준다. 한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사람이 만든 법도 하찮은 물고기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는 얼마나 신실하실까? 시편 103:17-18,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시다. 영이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극치이며 분명한 사랑의 증거다. 시편 16: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큰 고기는 못 잡았어도 마음이 무척 즐거웠다. 노인이 고생 고생 끝에 큰 고기를 잡았으나 배에 매달고 해안에 도착해보니 빼만 남은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가 칠십 평생을 살며 과연 무엇을 잡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진정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 본다.

시편 119: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불어 생령이 되게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공동체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법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인생의 기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심창진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사도행전 2:17-21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1장
※ 성시교독	135. 성령강림 주일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183장
대표기도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61:1-11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	심창진 목사
다함께	508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 축도	다함께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진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교회일정

삼위일체 주일:
6월 3일 (주일)
공동체 주관 예배:
6월 6일 (수)
성찬주일:
6월 24일 (주일)

◎ 6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이광희/이규임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김윤숙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이순옥 집사
다음 주일 1부: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영태 집사
6월 6일 수요기도: 공동체 주관
6월 6일 애찬기도: 이성희 집사
6월 10일 1부: 고성일 집사
6월 10일 2부: 박후임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 국내: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한인교회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 교회: 크고 작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소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에 힘을 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사모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전 건물 구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 국외: 열방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키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의 건강, 탈북자 선교를 하는 김 선교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또 바누아투 삼마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이 후원하는 학생들의 신앙과 지혜가 시간이 갈수록 넘치도록.

HELP IN TIME OF NEED

Comfort in Time of Sorrow - 슬픔에 빠진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Corinthians 1:3-5 [고린도후서1장3절-5절]

All prais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He is the source of every mercy and the God who comforts 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He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others. When others are troubled, we will be able to give them the same comfort God has given us.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You can be sure that the more we suffer for Christ, the more God will shower us with his comfort throug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Corinthians 1:3-5 [고린도후서1장3절-5절]

And the Holy Spirit helps us in our distress. For we don't even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nor how we should pray. But the Holy Spirit prays for us with groan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 해 주십니다.

And the Father who knows all hearts knows what the Spirit is saying, for the Spirit pleads for us believers in harmony with God's own will.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페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And we know that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 경덕현 집사 제공